

청소년의 가정요인이 친구요인을 매개하여 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저소득층과 중산층 차이를 중심으로

The Mediating Effects of Family Factors and Friendship Factors on Adolescent Depression: Differences between the Low-income Group and the Middle-class

김봉금*, 김상철**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 평생교육원*, 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Bong-Geum Kim(kbgrosa@hanmail.net)*, Sang-Cheol Kim(bremenkims@naver.com)**

요약

본 연구는 청소년의 가정요인이 친구요인을 매개하여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차이를 검증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제6차 중1 패널에서 1,522명(저소득층 246명, 중산층 1276명)을 대상으로 구조방정식의 다중집단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는 첫째,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방식이 우울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저소득층에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중산층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모양육방식이 친구요인에 미치는 영향은 저소득층이 중산층보다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친구요인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중산층이 저소득층보다 더 크게 부적으로 나타났다. 넷째, 부모양육방식이 우울에 미치는 친구요인의 매개효과는 중산층이 저소득층보다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친구요인 중에서 또래 소외에 대한 매개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 중심어 : | 저소득가정 | 우울 | 양육태도 | 친구요인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between low-income and middle-income groups with respect to how family factors intervene with friendship factors to influence adolescent depression. In order to do this, we selected 1,522 adolescents (246 from low-income group and 1276 from middle-income group) from 1 panel of the 6th Korean Children & Youth Panel Survey and conducted multiple-group analysis for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there were no direct effects of parenting style on adolescent depression for the low-income group, whereas effects were found to be significant for the middle-income group. Secondly, parenting style had a greater influence on friendship factors for the low-income group than the middle-income group. Thirdly, the influence of friendship factors on depression was much more negative for the middle-income group than the low-income group. Fourthly, it was found that parenting style had greater intervention effects on friendship factors influencing adolescent depression for the middle-income group as compared to the low-income group. However, intervention effects were not found for peer alienation.

■ keyword : | Low-income Family | Depression | Parenting Attitude | Friendship Factor |

I. 서론

청소년들은 성인과는 달리 정서적, 심리적으로 미숙하여 다양한 갈등을 겪게 되고 환경변화에 적절히 적응하지 못한다[1]. 특히 정서적으로 미숙하고 발달적 특성으로 청소년의 우울증은 성인보다 더 심각한 정서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며[2], 부모와 갈등, 친구문제 등 정서적 문제로 흡연, 음주, 스트레스, 자살 등의 정신장애로 나타났으며[3], 최근에는 우울한 정서가 자살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이라고 연구되었다[4].

청소년백서(2016)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평생 시 스트레스 인지 비율이 2014년 37.0%, 2015년 35.4%에서 2016년 37.4%로 30% 이상이며, 우울감 경험률¹도 2014년 26.7%, 2015년 23.6%, 2016년 25.5%로 나타났다[5]. 우울은 청소년기에 성장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정서문제이며, 동시에 인지, 지각, 태도 등에서 대인관계에 이르기까지 여러 방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다주는 심리적 부적응의 하나이다[6]. 또한, 청소년의 비위행위, 약물사용, 술 마시기, 자살 등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었으며 이러한 문제가 우울과 관련이 있다는 결과가 여러 연구에서 보고되었다[7]. 선행연구[1][2]에 의하면 청소년의 우울은 성인기의 우울 증상의 전조가 될 수 있으며[8], 청소년 우울 증상은 외견상으로는 사회문제가 되는 비행, 일탈로 간과될 수 있지만, 주관적 고통감이 매우 커서 극단적인 행동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9]. 따라서 청소년의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청소년기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영향으로 가정요인이 있다. 청소년은 가정에서 행복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려 하는 기본욕구가 있고 그 욕구가 충족하지 않을 경우 우울과 같은 증상이 유발될 수 있다[10].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가정요인에서 부모의 양육행동[11], 부모애착[12], 부모폭력[13] 등이 부모요인으로 연구되었다[14].

부모양육방식에서 부모와의 유대감이 낮은 수준에서는 우울감이 높아지는데 이는 발달적 변화로 스트레스

를 경험하는 청소년기에는 부모의 긍정적 양육이 청소년을 보호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나, 반면에 부모의 통제적 부정적 양육방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일관되지 않게 나타났다[15][16].

이에 따라 부모양육방식이 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부모의 긍정적 방식과 부정적 방식으로 구분하여 함께 연구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기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영향으로 친구요인이 있다. 청소년기는 친구관계가 차지하는 중요성과 영향력이 매우 높은 시기로, 친구관계는 스트레스와 정서문제 등을 대처하는데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적응을 제공하여 청소년의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Field, Diego와 Sandra(2001)은 친구관계가 적절하지 않고 친구나 또래의 수가 적으면서 인기가 적은 청소년들이 우울감을 경험하게 될 확률이 높다고 하였다[17]. 청소년들은 친구나 또래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친구나 또래가 자신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대하고 평가하느냐를 주된 관심을 끄는 일이 된다[18]. 따라서 청소년들은 친구나 또래에게 무시를 당하거나, 자기를 이해해 주는 친구가 없을 때 슬픈 감정이나 우울감에 빠지기 쉽다.

Vernberg 등 (1990)은 빈번히 만나는 친한 친구가 없거나, 친구로부터 빈번히 거부를 당한 경험을 한 청소년들이 우울증을 경험할 확률이 높다고 하였다[19][20]. 즉 친구의 사회적 지지는 가족의 사회적 지지와 마찬가지로 우울과 부적응 상관관계가 있으며[21], 우울 인식 지수가 높은 청소년들은 사회활동이나 대인관계를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일어난다[1]. 청소년의 우울유발요인으로 친구관계를 많이 연구하는 것은 청소년이 친구 혹은 또래와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에게 친구관계는 정체감, 소속감, 대인 간의 친밀감 형성 등 발달과제와 연관되어서 부적절한 친구관계를 많이 경험한 청소년들이 정신건강문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한 확률이 높아진다[22].

선행연구에 의하면, 친구들에게 배척받거나 무시당하는 그룹이 다른 집단보다 우울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친구 간에 친밀감이 클수록 우울감이 적어

1 최근 1년 동안 14일 간 지속적으로 일상생활을 그만둘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친구관계에 갈등이 발생하면,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아에 부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데 기인한다[22].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친구요인은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주로 청소년의 친구요인과 우울의 관련성을 규명했으며, 일부 연구는 청소년의 친구요인이 우울에 미치는 직접효과를 규명하였을 뿐이며, 친구요인의 매개효과를 함께 규명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우울 관계에 대해 친구요인의 매개효과가 어떠한지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Kovacas(1997)에 의하면 우울을 포함한 청소년의 문제행동이나 적응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빈곤이라고 한다[23][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저소득층의 우울 수치는 12.6점으로 고소득층 5.6점에 비해서 훨씬 높았다. 이는 저소득층이 고소득층과 비교하면 우울 강도가 2배 이상으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다[25]. 조성진(2001)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우울증에 대한 유행률 조사에 의하면 중하위집단이 상위집단보다 우울증 유행률이 2배 정도 높았다[26]. 이렇게 가정의 소득수준이 우울증 유행률을 증가시키는 것은 저소득층 가정이 일반가정의 청소년보다 더 많은 생활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청소년의 성별 혹은 특정 지역의 표본에 대한 횡단자료를 이용하여 우울에 대한 연구를 하였으며[15][27], 우울과 관련된 요인 중에서도 가정의 경제적 수준정도가 우울에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22]. 따라서 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차이를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선행연구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가정요인이 친구요인을 매개하여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차이를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사회복지 실천에서 청소년의 우울에 효과적인 개입 방안을 모색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청소년의 가정요인(부모양육양육방식, 부정 양

육방식)이 청소년 우울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저소득층과 중산층 간에 차이가 있을 것인가?

둘째, 청소년의 가정요인(부모양육양육방식, 부정양육방식)이 친구요인의 매개로 하여 청소년 우울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은 저소득층과 중산층 간에 차이가 있을 것인가?

II. 이론적 배경

1. 부모양육방식과 우울의 관계

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부모양육방식에 관련된 선행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11-16]. 부모의 과잉간섭과 과잉기대는 자녀의 우울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15][16]. 이는 부모의 애정이 결핍되었거나 지나치게 보호하는 태도는 우울, 불안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하였다[15][16].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우울이 부모의 양육방식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부모양육방식에 따라 청소년의 우울 정도와 양상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허나원(2001)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율적이고, 애정적 일수록 우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우울에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8][29].

부모의 양육방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부모가 애정을 가지고 자녀를 지도하는 경우 청소년의 우울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11][12], 반면 부모가 자녀에게 애정결핍, 방임, 과잉보호, 간섭이 심한 경우에는 우울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30].

이상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부모의 양육방식과 우울은 상호관련성이 있으며, 긍정적 양육방식은 청소년의 우울 및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부정적인 양육방식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2. 부모양육태도, 친구요인, 우울의 관계

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관련된 요인으로 친구요인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많은 연구결

과가 있다[17-20].

부모양육방식과 함께 친구요인이 우울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 중 하나라고 하였다[31]. 또한, 청소년 시절에 원만한 친구관계는 친구들과 친밀감을 얻게 되어 청소년의 환경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부정적인 친구관계는 친구로부터 소외감을 초래하여 일탈, 비행, 우울 등의 문제행동과 부적응을 가져온다[32]. 친구관계에서 인기가 낮거나, 소원한 친구관계, 친구로부터의 소외경험은 우울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청소년의 긍정적인 환경적응을 위해 친구관계는 부모양육방식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 부모양육방식이 부정적이고 비밀관성일 경우 자녀는 친구관계에서 부정적이며 공격적인 상호작용을 일으켜 친구에게 소외당하는 원인이 된다고 하였다[33]. 또한 부모가 자녀에게 신뢰감을 가지고,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과 자율을 가르칠수록 자녀의 친구관계가 원만히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기유나(2013)의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방식과 우울의 관계에서 또래관계의 하위변인인 또래신뢰, 또래소외는 부분 매개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34].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방식은 우울에 직접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또래관계를 통해 간접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청소년의 우울을 감소시키는데 있어 또래관계와 부모양육방식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기성(2014)에 의하면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방식이 부정적일수록 대인관계의 문제가 많아지며, 또한 우울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34]. 대인관계의 문제가 많을수록 우울의 수준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방식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대인관계가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부모양육태도와 친구관계에서, 부모양육방식과 친구관계는 우울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친구관계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방식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친구관계가 매개변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3. 연구모형

본 연구는 선행연구 검토를 토대로 청소년의 가정요인이 친구요인을 매개로 하여 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차이를 검토하기 위해 [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29].

연구모형의 경로를 살펴보면, 부모의 긍정양육방식은 청소년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부모의 긍정양육방식은 친구요인을 매개로 하여 청소년 우울에 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모의 부정양육방식은 청소년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부모의 부정양육방식은 친구요인의 매개로 하여 청소년 우울에 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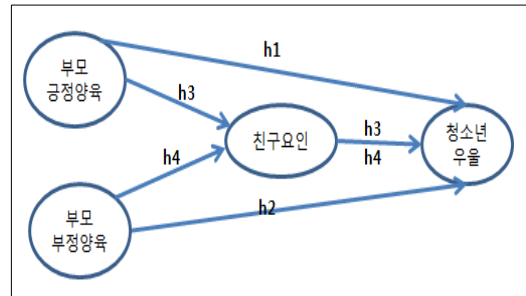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의 중1 패널의 6차(2015) 자료를 사용하였다[35]. 연구대상은 총 2,351명 중에서 월 소득 200.4만원 이하인 저소득²층 246명과 월 소득 200.4만원에서 606만원 사이의 중산층³ 1276명 총 1522명의 청소년을 선정하였다.

2 저소득층은 현행법상 법적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2015년 기준)

3 중산층은 평균소득의 50%에서 150%(2015년 기준)

2. 변수의 정의 및 측정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독립변수인 가정요인으로 부모양육방식(긍정, 부정), 매개변수는 친구요인(교우관계, 또래신뢰, 또래소외), 종속변수(우울)를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였다. 이들 변수에 대한 측정도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독립변수인 가정요인의 부모양육방식은 허묘연(2000)이 개발한 척도인 부모양육행동검사 도구에서 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은 지도감독 3문항, 부모애정 4문항, 부모의 합리적 설명 3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은 부모님의 비밀관성 3문항, 부모의 과잉기대 4문항, 부모의 과잉간섭 4문항을 사용하였다[37].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되었으며, 문항의 합이 높을수록 부모님의 긍정적 양육방식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내적일치도인 Cronbach's α 는 지도감독 .765, 부모애정 .838, 부모의 합리적 설명 .782, 부모의 비밀관성 .628, 부모의 과잉기대 .692, 부모의 과잉간섭 .696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인 청소년 우울의 척도는 한국형 간이정신진단검사에서 우울감 관련된 척도에서 수정 및 보완한 문항 중에서 10문항을 사용하였다[38].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우울증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내적일치도인 Cronbach's α 는 우울 .883으로 나타났다.

매개변수인 친구요인(교우관계, 또래신뢰, 또래소외)은 Armsden & Greenberg (1987)과 개발한 애착척도(IPPA)를 번안·수정한 옥정(1997)의 문항에서 또래신뢰 3문항, 또래소외 3문항을 선정하였으며[39][40], 민병수(1991)가 제작한 학교생활적응 척도에서 교우관계 5문항을 선정하여 총 11문항을 사용하였다[41].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친구요인의 인식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본 척도의 내적일치도인 Cronbach's α 는 또래신뢰 .833, 또래소외 .738, 교우관계 .645로 나타났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기술통계와 신뢰도 분석은 SPSS 22.0으로 구조방정식은 AMOS 22.0

을 사용하여 시행하였다. 부모양육방식이 친구요인을 매개하여 우울에 미치는 매개효과 검증은 Sobel 검증⁴을 하였다[42]. 모형의 적합도 검증은 상대적합도 지수인 Chi-square, TLI(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와 절대적합도 지수인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의 지수를 사용하였다. TLI와 CFI는 .9 이상, RMSEA는 .05 이하이면 좋은 적합도로 .08 이하이면 무난한 적합도로 해석된다[43].

IV.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전체 1,522명 중에서 저소득층 246명(16.2%), 중산층 1,276명(83.8%)이었다. 이들의 성별은 남자 770명(50.6%), 여자 752명(49.4%)으로 비슷하며, 성적은 “나쁘다.” 585명(55.8%), “보통” 283명(27%), “잘한다.” 180명(17.2%)으로 연구대상자의 약 56%가 성적이 “나쁘다”로 나타났다. 그러나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성적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부모구성은 친부·친모는 저소득층 111명(45.1%) 중산층 1194명(94.6%), 친부·친모가 아닌 기타 결혼가정은 저소득층 135명(54.9%), 중산층 82명(6.4%)로 저소득층이 중산층보다 결혼가정의 부모가 8.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연구모형의 검증에 앞서 연구모형에 포함된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일반적으로 최대 우도법(Maximum Likelihood Method)으로 추정할 경우 왜도의 절대치 2.0 이하, 첨도의 절대치 7.0 이하일 때 정규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모든 변수들의 왜도는 -.16~.50, 첨도는 -.33~.95의 범위에 있으므로 정규성의 조건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36][44].

4 Sobel $Z_{ab} = \frac{ab}{\sqrt{a^2 S_b^2 + b^2 S_a^2}}$

표 1.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구분		평균	SD	왜도	첨도
저소득	부모 긍정	2.85	.54	.50	.47
	부모 부정	2.14	.51	.43	.45
	친구 긍정	3.12	.41	.43	.45
	또래 소외	2.00	.66	.50	.24
	우울	1.99	.57	.22	-.11
중산층	부모 긍정	2.96	.44	-.16	.95
	부모 부정	2.17	.53	.17	.09
	친구 긍정	3.15	.41	.23	.12
	또래 소외	1.99	.63	.48	.41
	우울	1.86	.54	.20	-.33

3. 연구모형 검증

3.1 측정모형 검증

연구모형을 분석하기에 앞서 먼저 연구모형의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측정모형 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chi-square가 577.2(p<.001)로 나타나서 측정모형이 적합하다는 귀무가설이 기각되었다. 그러나 chi-square는 표본의 수에 민감하므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다른 적합도 지수를 검토한 결과 TLI=.912, CFI=.930, RMSEA=.054(LI=.050, HI=.059)로 나타나서 측정모형은 경험적 자료에 부합하였다.

또한 구조모형이 조사한 자료를 잘 반영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chi-square가 609.7(p<.001)로 나타나서 구조모형이 적합하다는 귀무가설이 기각되었다. 그러나 chi-square는 표본의 수에 민감하므로, 보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다른 적합도 지수를 검토한 결과 TLI=.922, CFI=.928, RMSEA=.051(LI=.047, HI=.055)로 나타나서 구조모형은 전반적으로 적합한 모형으로 확인하였다.

4. 다중집단분석

4.1 모형의 동일성 검증

저소득층과 중산층 간의 다중집단분석을 실행하기에 앞서 몇 가지 검증 방법으로 모형의 동일성을 검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다중집단 적합도 비교

모형	chi-square	df	TLI	CFI	RMSEA
기본모형	572.4	96	.904	.930	.057
측정모형	577.2	104	.912	.930	.054
구조모형	609.7	121	.922	.928	.051

우선 측정모형에서 각각의 잠재변인에 걸리는 요인 계수가 동일하다는 동일화 제약을 가한 측정동일성모형과 기본모형의chi-square 값과 자유도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chi-square 값의 차이 4.8, 자유도 차이 8로 유의수준 5%에서 귀무가설이 채택되어 두 집단이 동일함을 확인하였다.

다음 단계로 잠재변수들 간의 인과경로에서 저소득층과 중산층 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구조모형의 동일성을 검증하였다 이는 모든 구조모형에서 경로계수까지 동일화 제약을 가정한 후에 측정모형과의 chi-square 값과 자유도를 비교하는 것이다. 그 결과 chi-square 값의 차이는 32.5, 자유도의 차이는 17로 유의수준 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저소득층과 중산층 간에서 구조계수 동일성이 기각되어서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저소득층과 중산층 간 경로계수는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4.2 저소득층과 중산층 간의 효과 비교

저소득층과 중산층 간의 모형 동일성이 검증되었으며, 다중집단분석에 적합한 구조모형이 선정되었다. 따라서 저소득층과 중산층 간 청소년의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 구조모형의 표준화 계수

경로	저소득층		중산층	
	β	t	β	t
긍정→우울	-.188	-1.91	-.128	-3.31***
긍정→친구	.418	4.06***	.413	9.95***
친구→우울	-.384	-2.80***	-.408	-9.49***
부정→우울	.037	.415	.109	3.21***
부정→친구	-.337	-3.44***	-.136	-3.61***

위의 [표 3]에 제시된 구조방정식 모형의 결과를 살펴보면, 저소득층의 경우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방식이 우울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긍정적 태도로 자녀를 양육할수록 우울수준이 감소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지 않는다.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방식이 친구요인을 매개하여 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매개효과($\beta=-.161, p<.001$)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모형을 분석한 결과 청소년의 가정요인에서 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과 부정적 양육방식은 청소년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친구요인에는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친구요인의 하위변인에 대하여 매개효과에 대한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경로	저소득		중산층	
	매개	sobel	매개	sobel
긍정→ 친구→ 우울	-.161	-4.735**	-.168	7.304***
긍정→ 교우→ 우울	-.097	-2.021*	-.121	6.471***
긍정→ 신뢰→ 우울	-.094	2.043*	-.124	6.561***
긍정→ 소외→ 우울	.081	1.593	.079	4.179***
부정→ 친구→ 우울	.129	1.554	.056	3.294**
부정→ 교우→ 우울	.078	1.322	.040	2.395*
부정→ 신뢰→ 우울	.076	1.288	.041	2.426*
부정→ 소외→ 우울	.066	1.203	.026	1.538

친구요인의 하위변인으로 살펴보면, 교우관계($\beta = -.097, p < .05$)와 또래신뢰($\beta = -.094, p < .05$)는 부적효과가 있으며, 또래소외는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저소득층에서는 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이 친구관계를 매개하여 우울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이 우울에 미치는 영

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요인을 통한 매개효과 역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저소득층의 청소년은 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에서는 부모요인보다는 친구와 친밀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맺으면 우울의 수준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나타났으나,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은 부모나 친구관계 모두 우울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산층의 경우 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이 우울증에 부적($\beta = -.128, p < .01$)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부모가 자녀에게 긍정적일수록 우울의 수준이 감소한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친구요인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친구관계($\beta = -.168, p < .01$)는 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를 하위요인으로 살펴보면, 교우관계($\beta = -.121, p < .001$), 또래신뢰($\beta = -.124, p < .001$)는 감소효과가 있으며, 또래소외($\beta = .079, p < .05$)로 우울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이 우울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적($\beta = .109, p < .01$)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은 청소년의 우울증이 증가하는 영향을 미치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친구요인의 매개효과($\beta = .056, p < .01$)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친구요인의 하위변인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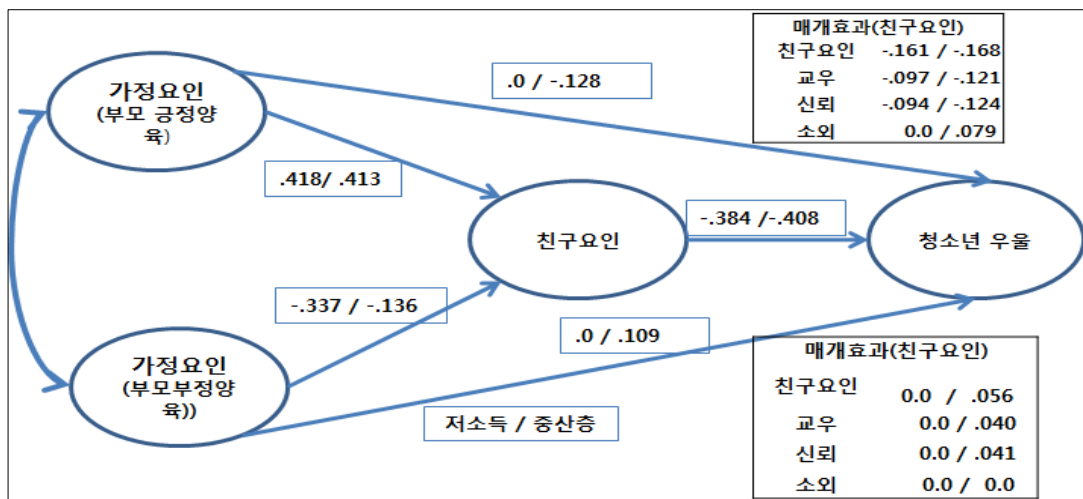


그림 2. 저소득층과 중산층 비교

로 살펴보면, 교우관계($\beta=.040, p<.05$), 또래신뢰($\beta=.041, p<.05$)는 증가효과가 있으며, 또래 소외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청소년은 부모나 친구와 친밀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맺으면 우울의 수준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나타났으나 부모나 친구와의 관계가 소원해지면 청소년의 우울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종합하여 [그림 2]와 같이 정리하였다.

우선 청소년에 대한 부모의 양육 방식은 저소득층에서는 직접적으로 우울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중산층은 긍정적 양육방식은 부적($\beta=-.128, p<.01$) 영향을 반면에 부정적 양육방식은 정적($\beta=.109, p<.01$)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친구요인의 매개효과로 살펴보면 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에서는 중산층($\beta=-.168, p<.001$)이 저소득층($\beta=-.161, p<.001$)보다 더 많이 우울에 대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하위요인으로 살펴보면, 교우관계와 또래신뢰는 청소년의 우울에 부적(-) 영향을, 또래소외는 청소년의 우울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부정적 양육방식은 저소득층은 친구요인에 대한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중산층은 교우관계와 또래신뢰는 우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소외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다음으로 친구요인이 청소년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은 저소득층이 중산층보다 더 많이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부정적 양육 방식도 저소득층이 중산층보다 더 부적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친구요인이 청소년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중산층이 저소득층보다 더 부적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제언

1. 논의

본 연구는 청소년의 가정요인이 친구요인을 매개로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을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차이를

검증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는 “2015년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의 중1 패널에서 저소득 246명, 중산층 1276명 총 1522명을 사용하였으며, 선행연구를 토대로 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한 후 구조방정식으로 분석한 결과와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저소득층의 우울은 평균 1.99점 표준편차 .57점이며 중산층의 우울은 평균 1.86점 표준편차 .54점으로 저소득층의 우울이 중산층의 우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이는 저소득층 청소년의 우울증은 중산층보다 우울증이 더 높다는 Kovacs(1997)과 조성진(2001), 문지혜(2011) 등과 일치한다[23][24][26]. 따라서 저소득층이 중산층보다 우울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청소년의 가정요인으로 부모양육방식이 우울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에 대하여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청소년의 가정요인으로 부모긍정양육방식은 저소득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산층에는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부모부정양육방식은 저소득층은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중산층에는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인숙(2012)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15]. 즉 중산층에서만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에서는 부모양육방식이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13-15][17], 이는 선행연구와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결과는 청소년의 부모구성에서 친부모 함께 거주하는 비율이 저소득층 45.1%, 중산층 94.6%로 구성되어서 부모의 감독과 애정은 청소년의 생활에서 절실히 요구되며, 친부모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것은 청소년의 우울을 부적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셋째, 청소년의 가정요인(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 부정적 양육방식)이 친구요인의 매개를 통하여 청소년 우울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에 대하여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차이를 살펴본다.

먼저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방식이 친구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부모의 긍정양육방식은 정적 영향을 주며, 저소득층이 중산층보다 약간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규련(2010)과

유기영 외(2001)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1][12][28][29]. 그러나 부모의 부정양육방식은 부적 영향을 미치며, 중산층보다 저소득층이 매우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지도감독과 애정이 부족한 청소년들이 친구 및 또래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을 알 수 있다[15][16][30][33].

다음으로 친구요인이 우울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우울을 감소시키는 영향을 주며, 중산층이 저소득층보다 약간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친구요인이 청소년의 우울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12].

다음으로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방식이 친구요인을 매개로 하여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먼저 부모의 긍정양육방식은 우울을 감소시키는 매개효과가 있으며[34], 중산층이 저소득층보다 약간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하위변인으로 살펴보면 교우관계와 신뢰는 우울을 감소시키는 영향을 미치며 소외는 우울을 증가시키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부정양육방식은 친구요인이 중산층에서는 우울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저소득층은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하위변인으로 살펴보면 교우관계와 또래신뢰는 부모의 부정양육방식이 교우관계와 또래의 신뢰를 매개하여 우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34], 또래소외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친구관계가 적절하지 않고 친구나 또래의 수가 적으면서 인기가 적은 청소년들이 우울감을 경험하게 될 확률이 높다고 하는 Field, Diego, 와 Sandra (2001)의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으나[17], 빈번히 만나는 친한 친구가 없거나, 친구로부터 빈번히 거부를 당한 경험을 한 청소년들이 우울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하는 Vernberg 등 (1990)과 이승환(2010)의 결과와는 일치하였다[19][20]. 이는 청소년이 친구 혹은 또래와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에게 친구관계는 정체감, 소속감, 대인간의 친밀감 형성 등 발달과제와 연관되어서 부적절한 친구관계를 많이 경험한 청소년들이 정신건강문제에 부정적 영향

을 가져다 줄 가능성에 대한 확률이 높아진다[22].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부모양육방식보다는 친구관계가 더 중요한 요인이며, 또한 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이 교우관계와 친구 신뢰를 통하여 우울에 미치는 부적 영향은 중산층이 저소득층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이 친구관계를 통하여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저소득층에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중산층에는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제언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실천적 제언과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를 토대로 한 제언은 첫째, 청소년의 우울 예방에 관련된 실천으로 '부모와 함께',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학교현장 프로그램을 주민센터 등이 주관하여 시행할 수 있는 활성화를 제안한다.

둘째, 친구 관계가 우울의 감소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는 청소년들에게 내적·외적 역량과 대인관계를 확장해 가는 공간으로 동호 모임 등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정신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학교사회복지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첫째, 저소득층의 사례가 중산층보다 적으므로 표본을 일반화 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중1 패널조사의 6차연도 뿐만 아니라 초 4패널을 포함하여 표본의 숫자를 늘려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우울함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요인으로 친구요인에 국한하였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다른 요인을 좀더 포함하면 세밀한 실천적 대안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청소년 우울함에 미치는 영향에서 또래소외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사례 수가 너무 적은데 기인하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소외에 대한 사례 수를 충분히 확보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넷째, 최근에 스마트폰 의존도에 의한 부-자녀 관계, 교사-학생 관계의 의사소통 단절로 초래하는 우울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차후의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의존도를 파악하여 연구에 포함해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 문헌

- [1] 유기영, 신영규, 은백린, 박상희, 독고영창, “수도권지역 청소년의 우울증,” 대한소아과학회지, 소아과, 제43권, 제2호, pp.172-178, 2000.
- [2] 임영식, “청소년기 우울증의 특징과 문제행동,” 사회과학연구, 제10권, pp.111-133, 1997.
- [3] 양미진, 이은경, 이희우, “청소년의 심리내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상담연구, 제14권, 제1호, pp.63-76, 2006.
- [4] 박병급, “청소년의 자살생각 요인: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지, 제16권, 제3호, pp.505-522, 2007.
- [5] 여성가족부, *청소년 백서*, 2016.
- [6] T. E. Joiner, M. S. Alfan, and G. I. Metalsky, “Caught in the crossfire: Depression, self-Consistency, Selfenhancement, and the response of other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Vol.12, pp.11-134, 1993.
- [7] 정지영, *중학생 우울과 지각된 부모양육태도,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행동억제 기질간의 관계: 성차를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8] D. S. Pine, F. Cohen, P. Cohen, and J. Brook, “Adolescent depressive symptoms as predictors of adult depression: Moodiness or mood disorder?,”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Vol.156, pp.133-135, 1999.
- [9] 김태희, 신현균, “인지행동 프로그램이 빈곤가정 아동의 우울 취약성 감소에 미치는 효과: 역기능적 태도와 낮은 자존심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제30권, 제4호, pp.907-927, 2011.
- [10] 이정선, *청소년의 개인 및 가족요인과 우울 간 관련성*,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11] 김혜영, *초기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이 심리사회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
- [12] 이정수,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이 중학생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13] 박기원,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 연구: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14] 손영미,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순천향대학교 사회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15] 최인숙, “성별에 따른 초기 청소년의 우울에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와 부정적 정서경험의 중재효과,” *청소년학연구*, 제19권, 제1호, pp.135-160, 2012.
- [16] 손병덕, “일반청소년 학습장애 청소년의 우울 및 자살 충동에 미치는 다변적 요인 예측,” *청소년학연구*, 제12권, 제1호, pp.207-228, 2005.
- [17] T. Field, M. Diego, and C. Sanders, “Adolescent depression and risk factors,” *Adolescence*, Vol.36, pp.491-498, 2001.
- [18] I. Steinberg, J. L. MEN, and N. S. Mounts, “Authoritative parenting, psychosocial Maturity, and academic success among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Vol.60, pp.1424-1436, 1989.
- [19] 이승환, *우울-폭행 장애청소년의 또래집단, 친구 관계 특성 및 대인관계 문제*,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20] E. Vernberg, D. Abwender, K. Ewell, and S. Beery, “Social anxiety and peer relationships in early adolescence: A prospective analysis,” *Journal of Clinical Child & Adolescent Psychology*, Vol.21, No.2, pp.189-199, 1992.
- [21] M. J. Barrea, and C. Garrison-Jones, “Family and peer social support as specific correlate of adolescent depressive symptom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Vol.20, pp.1-6, 1992.
- [22] 최규련, “가족환경과 학업 및 친구요인이 청소년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8권, 제6호, pp.95-111, 2010.
- [23] M. Kovacas, “Psychiatric disorders in youths

- with IDDM: Rates and risk factors,” *Diabetes care*, Vol.20, No.1, pp.36-44, 1997.
- [24] 문지혜, 윤혜영, 박혜원, “저소득층 가정 아동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자아관련 변수와 부모관련변수의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제49권, 제6호, pp.57-66, 2011.
- [25] 연합뉴스, 우울증 관련 뉴스, 2012.
- [26] 조성진, 외 6인, “한국 일 도시지역 청소년의 우울증상 유형들과 관련요인에 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제40권, 제4호, pp.627-639, 2001.
- [27] 김혜정,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친구관계의 질이 청소년의 외로움과 학교부적응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28] 허나원, *아동의 우울과 애착 및 양육태도와의 관계*,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29] 기유나,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우울증상의 관계에서 또래관계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30] 김보경, 민병배, “청소년 우울과 지각된 부모양육행동, 기질 및 성격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임상*, 제25권, 제1호, pp.221-236, 2006.
- [31] M. F. Prinstein and J. W. Aikins, “Cognitive Moderators of the Longitudinal Association Between Peer Rejection and Adolescent Depressive Symptom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Vol.32, No.2, pp.147-158, 2004.
- [32] Y. S. Lee, *Individual variables, family and school environmental variables that affect victimization by peer aggression among adolesc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a University, Busan, Korea, 2004.
- [33] 이영, 나유미, “유아의 애착 및 어머니-유아 상호작용과 또래상호작용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제20권, 제3호, pp.19-32, 1999.
- [34] 정기성, *고등학생의 지각된 부모양육태도와 우울의 관계: Young의 단절 및 거절도식과 대인관계 문제의 매개효과*,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 [35]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KCYPS): 중1패널 제1차 - 7차 조사표*, 2017.
- [36] 김영미, “청소년의 폭력피해경험과 인권익식-우울과 자기인권평가의 매개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6권, 제12호, pp.267-280, 2016.
- [37] 허묘연,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 척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 [38] 김광일, 원호택, 이정호, 김광윤, “간이정신진단 검사서 한국판표준화연구,” *신경정신의학*, 제17권, 제4호, pp.449-458, 1984.
- [39] G. C. Armsden and M. T. Greenberg,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 ir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16, No.5, pp.427-453, 1987.
- [40] 옥정, *청소년기 애착 안정성과 우울성향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 [41] 민병수, *학교생활적응과 자아개념이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 [42] R. M. Baron and D. A. Kenny,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1, pp.1173-1188, 1986.
- [43] 김계수,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한나래아카데미, 2011.
- [44] 홍세희, “특별기고: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제19권, 제1호, pp.161-177, 2000.

저 자 소 개

김 봉 금(Bong-Geum Kim)

정회원



- 2016년 2월 : 서울사회복지 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학(사회복지학석사)
- 2016년 3월 : 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 2016년 3월 ~ 현재 :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 평생교육원 강사

<관심분야> : 청소년, 노인의 정신건강, 우울증

김 상 철(Sang-Cheol Kim)

정회원



- 1991년 2월 :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제학석사
- 2005년 10월 : 독일 브레멘대학교 사회복지정책학박사
- 2011년 3월 ~ 현재 : 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관심분야> : 사회복지정책, 복지재정